

화장품

에이피알 278470

2Q25 Review: 시가총액 1위 달성, '그 때 그 시절' 밸류 가능할까?

Aug 7, 2025

BUY

유지

2Q25 Review: 시가총액 1위, 사상 최초, 성공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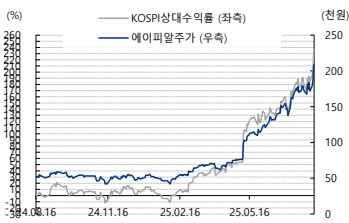
TP 290,000 원

상향

Company Data

현재가(08/06)	208,500 원
액면가(원)	100 원
52 주 최고가(보통주)	208,500 원
52 주 최저가(보통주)	41,900 원
KOSPI (08/06)	3,198.14p
KOSDAQ (08/06)	803.49p
자본금	38 억원
시가총액	79,322 억원
발행주식수(보통주)	3,743 만주
발행주식수(우선주)	0 만주
평균거래량(60 일)	59.0 만주
평균거래대금(60 일)	1,084 억원
외국인지분(보통주)	22.52%
주요주주	
김병훈 외 5 인	34.31%
국민연금공단	8.39%

Price & Relative Performance



주가수익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51.3	324.6	371.7
상대주가	44.5	236.8	272.0

2분기 연결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각각 3,277억원 (YoY 111%), 846억원 (YoY 202%)을 기록하며, 시장 기대치 +43% 상회하는 어닝서프라이즈 기록. OPM도 25.8%(YoY +7.8%p) 놀라운 수익성 기록. ① 매출 레버리지 효과, ② B2B 매출 기여 확대, ③ 화장품품 비수기에 따른 마케팅/물류비 비중 감소에 따른 효과로 분석. 호실적 발표 이후 주가는 전일 대비 +11% 상승했으며, 화장품 업종 내 시가총액 1 위 올라서는 역사적인 성과를 기록함.

1)미국 매출액 962억원(YoY 286%, QoQ 36%) 시현. 화장품 매출 YoY 491%, QoQ 45% 증가했는데, 온라인 행사 부재에도 전반적인 브랜드력 상승에 따른 판매 호조, 제로모공팩드 외 콜라겐 마스크팩, PDRN 세럼 다수 히어로 제품 판매 긍정적. 디바이스 매출도 YoY 61% 증가 추산. ULTA향 매출은 2분기 30억원 인식되었으며, 소비자 판매는 8월 예정. 2)일본 매출액 439억원(YoY 366%, QoQ 50%) 시현. 화장품 YoY 373%, 디바이스 YoY 397% 증가 추산. 마케팅비가 크게 증가했으나, 매출 증가가 이를 상쇄한 것으로 파악됨. 일본은 PDRN 라인 중심 판매 호조, 오프라인 입점 매장은 1Q25 1천개 → 2Q25 2.5천개로 확대 흐름 긍정적. 3)중화권 매출 347억원(YoY 34%, QoQ 22%) 시현. 특별한 마케팅 없이 전반적인 글로벌 인지도 향상에 따른 매출 견조. 4)B2B 및 기타는 797억원(YoY 368%, QoQ 31%) 시현. 유럽 매출액은 250억원 수준으로 파악되며, 향후 확장 가능성 긍정적. 올해 말 ~ 내년 초 유럽 내 각국 법인 설립으로 현지 마케팅 및 영업 강화해 나갈 전망

투자의견 BUY 유지 및 목표주가 290,000원으로 상향

에이피알의 목표주가를 기존 19.5만원에서 29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업종 내 Top-Pick 관점 유지**. Target P/E를 기존 25배에서 30배로 조정 및 12MF EPS 추정치 상향 조정함. 밸류에이션 상향 조정 근거로는 ① 글로벌 트렌드 세터로서의 역할 수행, ② 미국/유럽 등 선진국 비중 확대 및 매출 구조 다변화, ③ K소프트파워 확산, ④ 이익률 구조적 개선, ⑤ 성숙 시장 내에서의 압도적인 성장률 등을 감안. 또한, 제로모공팩드, 콜라겐마스크팩, PDRN세럼 등 다수의 히어로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 참고로, 과거 중국 수요 확대 국면, 아모레퍼시픽의 Target P/E는 14년 3월 22~25배 → 14년 5월 27~30배 → 14년 9월 35배 → 15년 37~45배로 급격한 리레이팅을 경험한 바 있음

Forecast earnings & Valuation

12 결산(십억원)	2023.12	2024.12	2025.12E	2026.12E	2027.12E
매출액(십억원)	524	723	1,316	2,005	2,406
YoY(%)	31.7	38.0	82.0	52.4	20.0
영업이익(십억원)	104	123	312	492	610
OP 마진(%)	19.8	17.0	23.7	24.5	25.4
순이익(십억원)	82	108	263	416	514
EPS(원)	11,244	2,842	7,044	11,146	13,759
YoY(%)	166.3	-74.7	147.8	58.2	23.4
PER(배)	0.0	17.6	29.6	18.7	15.2
PCR(배)	0.0	11.7	7.5	5.0	4.2
PBR(배)	0.0	5.9	13.3	7.8	5.1
EV/EBITDA(배)	0.0	12.9	23.8	15.0	11.5
ROE(%)	54.9	41.3	57.8	52.4	40.8



[화장품/음식료] 권우정
3771- 9082,
20240006@iprovest.com

[도표 1] 에이피알 2Q25 Re

(단위: 십억원, %)

구분	2Q25P	2Q24	YoY%	Consen	Diff%	1Q25	QoQ%
매출액	327.7	155.5	110.8	287.6	14.0	266.0	23.2
영업이익	84.6	28.0	201.9	59.2	42.8	54.6	54.9
세전이익	78.4	28.8	171.8	61.7	27.0	59.2	32.4
(지배)순이익	66.3	24.1	175.1	48.6	36.4	49.9	32.8
OPM%	25.8	18.0		20.6		20.5	
NPM%	20.2	15.5		16.9		18.8	

자료: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 에이피알 실적 추이 및 전망

(단위: 십억원, %)

	1Q24	2Q24	3Q24	4Q24	1Q25	2Q25P	3Q25F	4Q25F	23	24	25F
매출액	148.9	155.5	174.1	244.2	266.0	327.7	338.5	383.4	523.8	722.8	1,315.6
1. 한국	82.8	78.3	73.9	88.0	76.8	73.2	62.3	74.1	318.6	323.0	286.4
2. 미국	24.7	24.9	39.6	69.0	70.9	96.2	124.0	149.0	67.9	158.3	440.1
3. 일본	9.8	9.4	15.2	17.7	29.3	43.9	47.4	51.2	33.2	52.2	171.9
4. 중화권	20.4	26.0	25.0	29.0	28.4	34.7	34.7	36.1	77.0	100.4	133.9
5. B2B 및 기타	11.2	16.9	20.5	40.5	60.7	79.7	70.0	73.0	27.1	89.0	283.4
YoY	21.9%	21.8%	42.8%	60.6%	78.6%	110.8%	94.4%	57.0%	31.7%	38.0%	82.0%
1. 한국	-1.5%	-5.9%	12.3%	2.9%	-7.3%	-6.5%	-15.6%	-15.8%	25.4%	1.4%	-11.3%
2. 미국	196.0%	108.8%	123.3%	130.7%	186.5%	285.8%	213.3%	116.0%	127.3%	133.0%	178.1%
3. 일본	16.1%	13.2%	78.6%	125.0%	198.3%	366.1%	212.0%	189.3%	-11.1%	57.2%	229.6%
4. 중화권	183.0%	267.3%	91.7%	204.1%	39.4%	33.6%	38.8%	24.3%	246.5%	30.4%	33.4%
5. B2B 및 기타	73.4%	88.2%	140.3%	373.9%	441.9%	372.6%	242.1%	80.3%	-	228.4%	218.4%
영업이익	27.8	28.0	27.2	39.7	54.6	84.6	81.2	92.0	104.2	122.7	312.4
YoY	19.7%	13.0%	24.6%	15.5%	96.5%	201.8%	198.2%	131.9%	165.6%	17.8%	154.6%
OPM	18.6%	18.0%	15.6%	16.3%	20.5%	25.8%	24.0%	24.0%	19.9%	17.0%	23.7%
세전이익	30.4	28.8	26.4	47.6	59.2	78.4	80.7	100.5	105.8	133.3	318.8
YoY	28.2%	16.6%	13.7%	39.5%	94.8%	171.8%	205.0%	111.0%	171.9%	26.0%	139.1%
(지배)순이익	24.1	24.1	16.0	43.4	49.9	66.3	65.3	81.4	81.5	107.6	263.0
YoY	18.7%	28.4%	-12.9%	80.0%	107.3%	175.2%	308.2%	87.7%	172.2%	31.9%	144.5%
NPM	16.2%	15.5%	9.2%	17.8%	18.8%	20.2%	19.3%	21.2%	15.6%	14.9%	20.0%

자료: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지역별 상세 업데이트

1)미국 매출액 962억원(YoY 286%, QoQ 36%) 시현. 화장품은 온라인 행사 부재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인지도 상승에 따라 화장품 매출(비중 20%) YoY 491%, QoQ 45% 추산. 제로모공패드 외 콜라겐 마스크팩, PDRN 세럼 다수 히어로 제품 판매 긍정적. 디바이스 매출(비중 20%)도 YoY 61% 증가 추산. 채널별 비중은 아마존 60% 내외, 틱톡샵 30% 내외, 자사몰 10% 내외, ULTA 3% 수준. ULTA 향 매출은 6월에 30억원 인식되었으며, 소비자 문칭은 8월 예정.

사측은 향후 ULTA 매출을 온라인 매출의 약 20~30%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교보증권은 ULTA에 성공적으로 안착시 연간 1천억원 내외 매출 기여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함. 비슷한 사례로 ELF는 FY25 기준 아마존 및 ULTA에서 각각 2천억원 내외 매출 기록 중. 에이피알의 올해 아마존 매출도 2천억원 내외로 추정되며, ULTA에서 1천억원 달성은 무리한 가정은 아니라고 판단함. 또한, 제품 확대 및 채널 확대로 추가적인 오프라인 매출 확대 가능성 존재. 관세 15% 영향은 OPM단 1%p 내외 부담 요인이나, 이는 매출 레버리지로 충분히 상쇄 가능하다고 판단함.

2)일본 매출액 439억원(YoY 366%, QoQ 50%) 시현. 화장품 매출(비중 40%) YoY 397%, QoQ 50% 추산. 디바이스 매출(비중 60%) YoY 373%, QoQ 50% 추산. 마케팅비 집행이 확대되었으나, 매출 증가 폭이 이를 상회한 것으로 파악됨. 6월 메가와리 실적은 사상 최대치 기록. 일본은 PDRN 라인업 판매 호조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되며, 디바이스 판매도 긍정적. 오프라인 입점 채널 수도 1Q25 1천개 → 2Q25 2.5천개로 확대 흐름 긍정적. 현재 경쟁사(A사, V사)의 오프라인 점포 수가 1만개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유통망 확장 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3)중화권 매출 347억원(YoY 34%, QoQ 22%) 시현. 특별한 마케팅 없이 전반적인 글로벌 인지도 향상에 따른 안정적인 성장세를 기록

4)B2B 및 기타는 797억원(YoY 368%, QoQ 31%) 시현. 이 중 B2B 매출 비중은 90% 수준으로 파악됨. 유럽 매출액은 250억원 수준으로 파악되며, 향후 확장 가능성 긍정적. 참고로, 24년 10월 유럽 부츠에 입점한 아누아는 입점 매장수가 QoQ 확대 중이며, 2분기 영국 부츠 매출이 QoQ 26%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메디큐브도 25년 5월에 입점한 점 감안시 향후 확장 여력이 기대됨.

에이피알 시가총액 1위 달성, '그 때 그 시절' 밸류 가능할까?

전일은 에이피알이 BIG 2를 제치고 시가총액 1위를 기록. 실적 측면에서도 에이피알이 846억원을 기록하며, 아모레(737억원)과 LG생활건강(548억원)을 모두 상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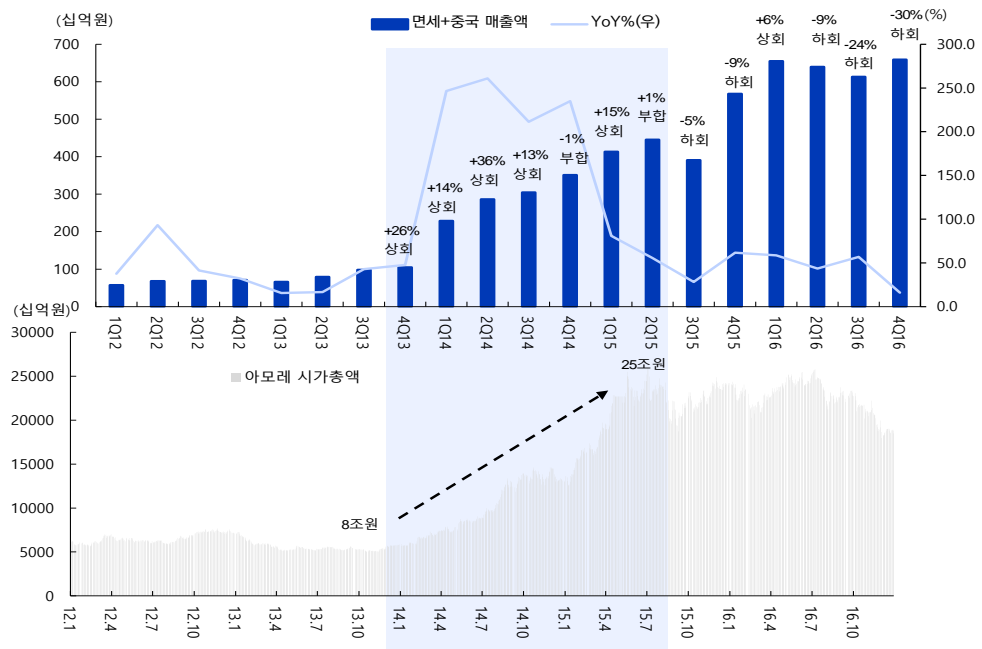
다만, 최근 주가가 급등하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에 대한 우려도 일부 제기되고 있음. 연초 이후 에이피알의 주가는 +274% 상승했으며, 교보증권 추정치 기준 12MF P/E는 약 20배 수준까지 상승. 통상적으로 시장에서는 인디브랜드에 대해 20배 내외, 대형 브랜드 25배 내외의 P/E를 적용해왔던 점을 고려해 시장에서 부담을 느끼는 듯.

과거 이와 유사한 리레이팅 사례로는 2014년~2015년 아모레퍼시픽이 대표적임. 4Q13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면세 호실적+중국 법인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더해지며 가파른 리레이팅이 전개됨. 당시 실적은 4Q13 +26% 서프라이즈를 시작으로, 이후 1Q14 +14%, 2Q14 +36%, 3Q14 +13%, 4Q14 -1%, 1Q15 +15% 등 연속적으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며 강한 실적 모멘텀을 입증함.

당시 이익 추정치 상향뿐만 아니라, 애널리스트들의 Target P/E는 14년 3월 22~25배 → 14년 5월 27~30배 → 14년 9월 35배 → 15년 37~45배 수준까지 확대. 당시 적용되던 P/E 40배 수준의 밸류에이션 논리는 글로벌 업체의 해외 확장 시기 P/E 평균, 면세 업종 P/E, 오ര온 중국 확장 시기 P/E 등을 근거로 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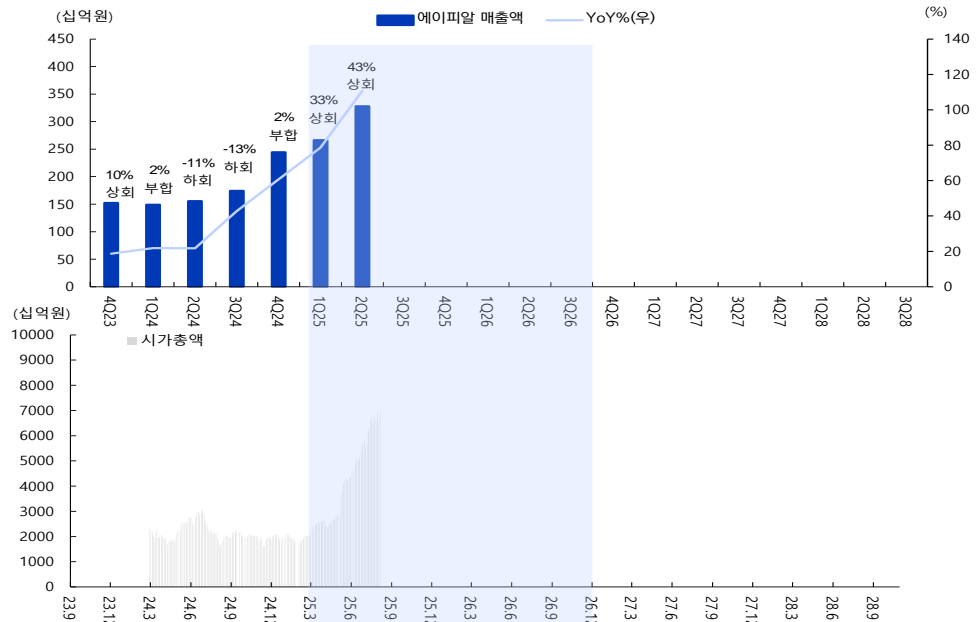
[도표 3] 과거 아모레퍼시픽 면세+중국 매출액 추이 Vs. 시가총액 추이

4Q13 호실적 발표 후
가파른 리레이팅



자료: 퀀티와이즈,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4] 에이피알 매출액 추이 Vs. 시가총액 추이



자료: 퀀티와이즈,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5] 과거 아모레퍼시픽 시가총액 히스토리

(단위: 십억원, %)

일자	시가총액	12MFP/E	시가총액 1조원 증가 기간(일)
	(십억원)	(배)	(일)
2014-01-02	5,887	22	
2014-01-21	6,080	23	19
2014-03-07	7,284	27	45
2014-05-09	8,243	29	63
2014-07-04	9,236	30	56
2014-07-11	10,002	32	7
2014-08-11	11,259	36	31
2014-08-13	12,089	34	2
2014-08-25	13,375	37	12
2014-10-21	14,258	36	57
2015-01-23	15,199	35	94
2015-02-05	16,573	37	13
2015-02-24	17,380	39	19
2015-03-17	18,257	40	21
2015-03-24	19,169	42	7
2015-04-10	20,770	43	17
2015-04-13	21,630	44	3
2015-04-17	22,857	46	4
2015-05-15	23,091	39	28
2015-05-18	25,517	43	3

자료: 퀀티와이즈,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에이피알 역시 과거 중국 소비주들과 유사한 리레이팅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음

1) 미국에서 단순히 주류가 아닌 트렌드 세터 역할을 수행 중임. 7월 아마존 프라임데이 행사에서 메디큐브가 뷰티 브랜드 중 점유율 1위(9.3%)를 기록. 2위인 뉴트라폴(5.3%), 3위 세라비(5.1%)와 비교해 약 2배 가까운 격차를 보임. 파편화된 아마존 뷰티 시장 구조상, 하나의 브랜드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며, 메디큐브의 브랜드 파워를 보여주는 사례. 또한 최근 Korean Skincare, Korean Cosmetics 등의 글로벌 구글 트렌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에이피알 자체 키워드 검색량도 전 세계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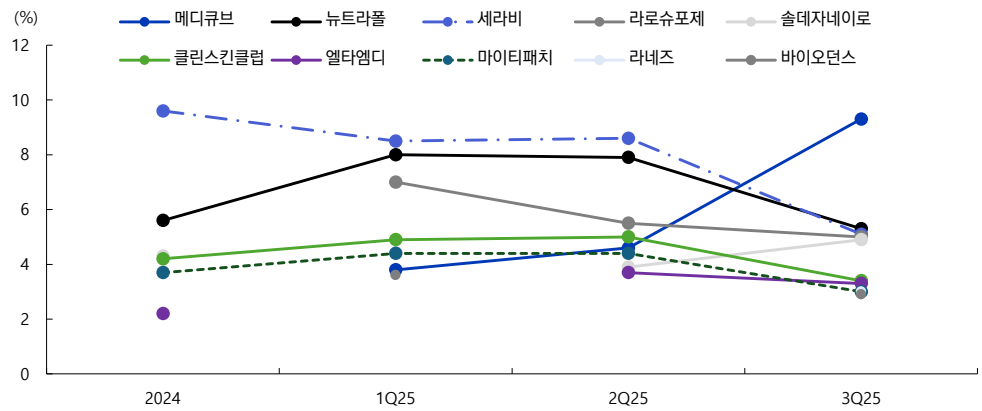
2) 미국/유럽 등 선진 시장 중심 구조 및 매출 비중 다변화됨. 과거 K뷰티는 문화가 유사한 아시아권 시장에 집중되었으며, 서구권에서 낮은 확장성으로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했음. 또한, 아모레는 면세 및 중국 비중이 50%를 상회할 정도로 단일 국가 의존도가 높았고, 이는 사드 사태와 같은 외부 변수에 따라 실적이 급격히 악화되는 구조였음. 반면, 메디큐브는 미국(29%) 등 문화권이 다른 시장에서도 의미있는 성과를 내고 있으며, 국내(22%), 일본(13%), 중화권(11%), 기타(24%)로 매출 비중이 고르게 분산되어 있음

3) 과거 한류 열풍 대비 K소프트 파워가 과거 대비 폭발적이라는 점임. 과거 한류는 한국 드라마에 한정되었다면, 현재 한국 영화, 한국 음악, 심지어는 해외 제작사가 제작한 애니메이션 등 K의 소프트파워가 과거와 비교가 안될 정도로 강력함. K뷰티도 과거에는 한국 연예인 모델 기용 등이 중요했지만, 현재는 제품력과 혁신성을 바탕으로 브랜드 인지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흐름이 뚜렷함.

4) 이익률 구조도 과거 대비 한층 강화됨. 에이피알 2Q25 25.8% 마진율을 유지 중이며, 이는 당시 아모레 가장 고마진 채널이었던 면세 이익률 25%~30%과 유사한 수준임. 특히 B2B 채널은 40% 이상 이익률을 보이며, 과거 대비 제조-유통-브랜드 분업화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가 극대화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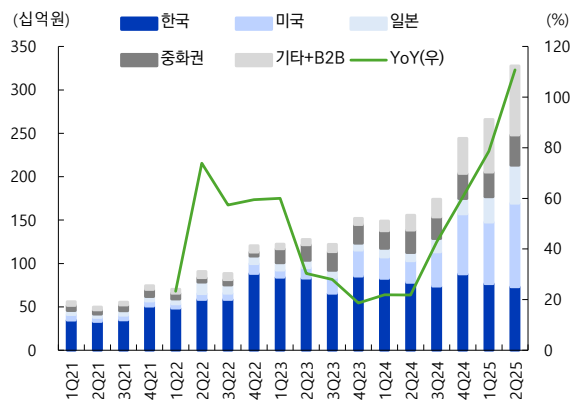
물론, 과거 중국 소비재 시장은 고성장 산업이었던 반면, 현재 선진국 화장품 시장은 성숙기 산업이라는 점에서 차이는 존재함. 그러나 성숙기 시장 내에서 기존 브랜드 대비 압도적인 성장률을 보인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높은 프리미엄이 정당화될 수 있음. 또한, 최근 중국 한한령 해제 가능성 등은 향후 업사이드 요인으로 열어둘 수 있음.

[도표 6] 미국 아마존 뷰티 브랜드 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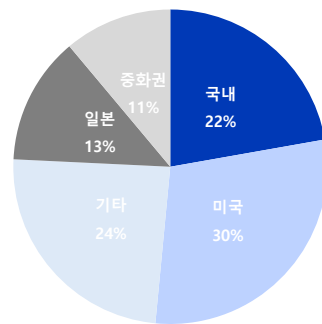
자료: Navigo,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7] 에이피알 분기별 매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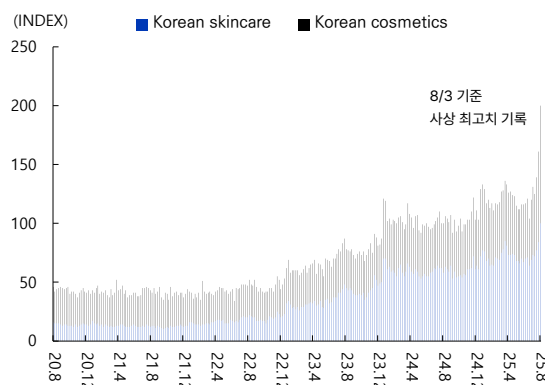
자료: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8] 에이피알 국가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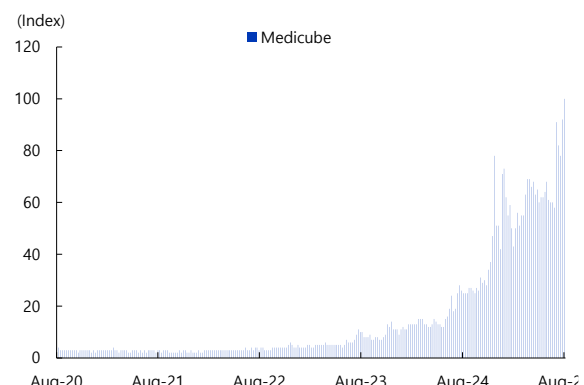
자료: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9] Korean skincare+Korean cosmetics 구글 트렌드



자료: 구글,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0] Medicube 구글 트렌드



자료: 구글,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투자 의견 BUY 유지 및 목표주가 29만원으로 상향

투자 의견은 BUY를 유지하며, 목표주가는 기존 19.5만원에서 29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목표주가 상향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① 글로벌 트렌드 세터로서 브랜드 위상 강화 ② 문화권을 초월한 선진시장 내 실질적인 성과와 매출 비중의 다변화, ③ K소프트파워 확산과 제품력 기반 브랜드 인지도 형성, ④ 이익률 구조적 개선, ⑤ 성숙 시장 내에서의 압도적인 성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임. 특히, 아마존 내 점유율이 1Q25 3.8% → 2Q25 4.6% → 7월 9.3%로 급격히 상승하며 브랜드 파워가 수치로 입증되고 있음. 미국 내 구글 검색량 역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인지도 확산이 판매로 직결되는 구조가 가시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Target P/E는 기존 25배에서 30배로 기존 대비 +20% 상향 조정. 참고로 과거 아모레퍼시픽도 중국 수요 확대 시기 Target P/E는 14년 3월 22~25배 → 14년 5월 27~30배 → 14년 9월 35배 → 15년 37~45배 수준까지 리레이팅된 바 있음

[도표 11] 에이피알 Valuation table

구분	내용	비고
12MF EPS(원)	9,804	
Target P/E(X)	30	
적정주가(원)	294,129	
목표주가(원)	290,000	
현재주가(원)	204,500	8/6 종가 기준
상승여력	42%	

자료: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에이피알 278470]

포괄손익계산서

단위: 십억원

12 결산(십억원)	2023A	2024A	2025F	2026F	2027F
매출액	524	723	1,316	2,005	2,406
매출원가	128	179	326	497	596
매출총이익	395	544	990	1,508	1,810
매출총이익률 (%)	75.5	75.2	75.2	75.2	75.2
판매비와관리비	291	421	677	1,016	1,200
영업이익	104	123	312	492	610
영업이익률 (%)	19.9	17.0	23.7	24.5	25.3
EBITDA	118	145	326	501	615
EBITDA Margin (%)	22.5	20.1	24.8	25.0	25.6
영업외손익	2	11	6	12	13
관계기업손익	0	0	0	0	0
금융수익	9	29	28	39	56
금융비용	-7	-17	-16	-16	-16
기타	-1	-1	-6	-11	-27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06	133	319	504	623
법인세비용	24	26	56	88	109
계속사업순이익	82	108	263	416	514
중단사업순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82	108	263	416	514
당기순이익률 (%)	15.6	14.9	20.0	20.8	21.4
비지배지분순이익	0	0	0	0	0
지배지분순이익	82	108	263	416	514
지배순이익률 (%)	15.6	14.9	20.0	20.8	21.4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	0	0	0	0	0
기타포괄이익	0	-2	-2	-2	-2
포괄순이익	81	106	261	414	512
비지배지분포괄이익	0	0	0	0	0
지배지분포괄이익	81	106	261	414	512

주: K-IFRS 회계기준 개정으로 기존의 기타영업수익/비용 항목은 제외됨

현금흐름표

단위: 십억원

12 결산(십억원)	2023A	2024A	2025F	2026F	2027F
영업활동 현금흐름	108	79	194	327	465
당기순이익	82	108	263	416	514
비현금항목의 가감	40	55	75	91	92
감가상각비	13	22	13	8	5
외환손익	0	-5	-1	-1	-1
지분법평가손익	0	0	0	0	0
기타	27	38	63	84	88
자산부채의 증감	1	-58	-96	-111	-67
기타현금흐름	-15	-25	-48	-69	-74
투자활동 현금흐름	-28	-110	-52	-57	-62
투자자산	-16	-45	0	0	0
유형자산	-10	-45	-50	-55	-61
기타	-3	-19	-2	-2	-2
재무활동 현금흐름	-11	-5	-12	-12	-12
단기차입금	-14	-8	0	0	0
사채	3	0	0	0	0
장기차입금	0	0	0	0	0
자본의 증가(감소)	9	74	0	0	0
현금배당	0	0	0	0	0
기타	-9	-72	-12	-12	-12
현금의 증감	68	-35	141	270	403
기초 현금	57	125	90	232	502
기말 현금	125	90	232	502	905
NOPLAT	80	99	258	406	503
FCF	86	18	125	249	381

자료: 에이피알,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재무상태표

단위: 십억원

12 결산(십억원)	2023A	2024A	2025F	2026F	2027F
유동자산	219	286	522	903	1,374
현금및현금성자산	125	90	232	502	905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24	49	53	58	63
재고자산	57	110	200	305	365
기타유동자산	14	37	38	39	40
비유동자산	68	279	315	361	416
유형자산	14	51	88	135	190
관계기업투자금	0	0	0	0	0
기타금융투자자산	18	62	62	62	62
기타비유동자산	36	166	165	164	164
자산총계	287	565	838	1,264	1,790
유동부채	82	145	150	155	160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40	70	73	77	81
차입금	8	0	0	0	0
유동성채무	0	0	0	0	0
기타유동부채	35	75	76	77	79
비유동부채	8	96	101	107	114
차입금	0	0	0	0	0
사채	0	0	0	0	0
기타비유동부채	8	96	101	107	114
부채총계	90	242	251	262	274
지배지분	197	324	586	1,003	1,516
자본금	4	4	4	4	4
자본잉여금	61	137	137	137	137
이익잉여금	124	229	492	908	1,422
기타자본변동	8	-47	-47	-47	-47
비지배지분	0	0	0	0	0
자본총계	197	324	586	1,003	1,516
총차입금	16	91	95	100	105

주요 투자지표

단위: 원, 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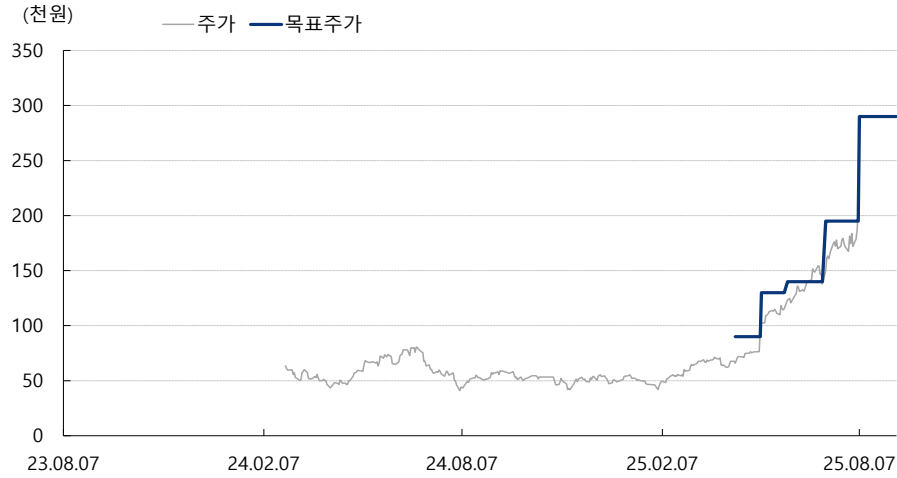
12 결산(십억원)	2023A	2024A	2025F	2026F	2027F
EPS	11,244	2,842	7,044	11,146	13,759
PER	0.0	17.6	29.6	18.7	15.2
BPS	27,071	8,486	15,706	26,851	40,611
PBR	0.0	5.9	13.3	7.8	5.1
EBITDAPS	16,287	3,836	8,739	13,415	16,480
EV/EBITDA	0.0	12.9	23.8	15.0	11.5
SPS	14,445	19,092	35,233	53,703	64,444
PSR	0.0	2.6	5.9	3.9	3.2
CFPS	11,813	480	3,354	6,659	10,198
DPS	0	0	0	0	0

재무비율

단위: 원, 배, %

12 결산(십억원)	2023A	2024A	2025F	2026F	2027F
성장성					
매출액 증가율	31.7	38.0	82.0	52.4	20.0
영업이익 증가율	165.6	17.8	154.6	57.6	23.9
순이익 증가율	172.2	31.9	144.5	58.2	23.4
수익성					
ROIC	193.3	137.6	154.3	132.5	114.2
ROA	34.6	25.2	37.5	39.6	33.6
ROE	54.9	41.3	57.8	52.4	40.8
안정성					
부채비율	45.9	74.7	42.8	26.1	18.0
순차입금비율	5.4	16.0	11.3	7.9	5.8
이자보상배율	82.3	32.6	80.5	126.9	157.2

에이피알 최근 2년간 목표주가 변동추이



최근 2년간 목표주가 및 괴리율 추이

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평균	최고/최저
2025.04.15	매수	90,000	(16.37)	9.33					
2025.05.09	매수	130,000	(13.63)	(9.08)					
2025.06.02	매수	140,000	(0.96)	10.14					
2025.07.07	매수	195,000	(10.25)	6.92					
2025.08.07	매수	290,000							

자료: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 조사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조사자료는 투자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당사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고객에게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습니다. 당사 연구원 사칭 사기 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전일기준 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추천종목은 전일기준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투자의견 비율공시 및 투자등급관련사항 기준일자_2025.06.30

구분	Buy(매수)	Trading Buy(매수)	Hold(보유)	Sell(매도)
비율	95.9	3.4	0.7	0.0

[업종 투자의견]

Overweight(비중확대): 업종 펀더멘탈의 개선과 함께 업종주가의 상승 기대
Underweight(비중축소): 업종 펀더멘탈의 악화와 함께 업종주가의 하락 기대

Neutral(중립): 업종 펀더멘탈상의 유의미한 변화가 예상되지 않음

[기업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 향후 6개월 기준, 2015.6.1(Strong Buy 등급 삭제)

Buy(매수): KOSPI 대비 기대수익률 10%이상
Hold(보유): KOSPI 대비 기대수익률 -10~10%

Trading Buy: KOSPI 대비 10%이상 초과수익 예상되나 불확실성 높은 경우
Sell(매도): KOSPI 대비 기대수익률 -10% 이하